초 점

EU 가입 이후 체코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진출 시사점

최은경 · 국별조사실 전문연구원

Ⅰ. 머리말
Ⅱ.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와 장애요인
Ⅳ. 우리나라의 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

요 약

체코는 중동부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체제전환국의 하나로, 1998년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이후 FDI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FDI를 유치하였으나, EU 가입 이후에는 정치·경제의 안정,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 등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현재 체코의 FDI 누계는 569억 달러에 이르며, 1인당 FDI는 5,500달러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체코에 투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금융중개업, 무역 및 숙박·요식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70%인데 반해,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설비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30%에 그치고 있다.

1998년에 도입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는 제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산업지대 개발, 부품 공급업체 발굴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체코 정부는 R&D, IT, 전략적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법률체계,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체코간 교역현황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 체코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 제품 및 부품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련 부문 등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투자규모는 주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진출 현황, IT 산업 경쟁력, 체코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등을 고려할 때, IT, 자동차, 유통, 관광 인프라 분야로의 진출이 향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Ⅰ. 머리말

체코는 1989년 공산체제 붕괴, 1993년 슬로바키아와의 분리 과정을 거치면서 중동부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 가운데 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및 정착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체제전환국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취약한 국내투자 여건 속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던 중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체코 정부는 FDI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8년 이후 FDI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들의 정치·경제의 안정과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EU시장으로의 접근용이성 등으로 체코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여타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송·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체코시장에 대한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EU 가입 이후 생활 및 기술수준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체코의 산업구조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R&D, IT 등 보다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이 같은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R&D, IT, 전략적 서비스업 부문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경쟁국들은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R&D, IT 부문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는 여전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체코 및 유럽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투자업종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체코의 FDI 현황, 주요 투자 인센티브와 장애요인,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진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투자환경 개요

체코는 은행, 보험, 국방 등과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재산권 보장, 민영화,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에 관한 모든 면에 있어서 법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등 투자환경은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이윤송금에 대한 제한은 없고[1], 사업등록 법인은 농지와 삼림을 제외한 토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체코는 투자분쟁해결조약, 국제저작권협정, 국제투자보증기구 등의 국제협정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1) 주식합명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는 일정의 필요 적립금 및 세금을 내야함.

양자간 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2]을 맺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베른협약, 파리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세계 주요기관들로부터도 상당히 양호한 신용도 평가[3]를 받고 있는 체코는 EU 가입 이후 정치·경제의 안정,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양질의 인적자원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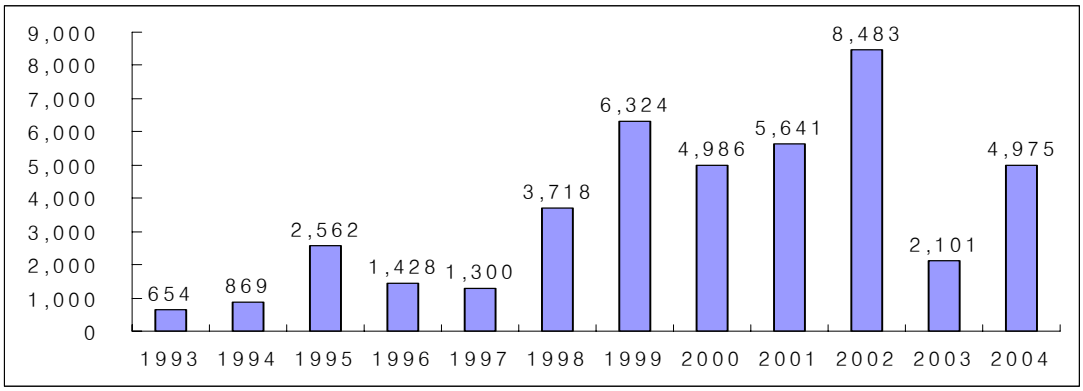
2004년 말 현재 체코의 FDI 누계는 569억 달러에 이르며, 1인당 FDI는 5,500달러로 추정되어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체코는 GDP 대비 FDI 규모면에서도 1999년 이후 매년 평균 1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코의 외국인투자 전담기관인 CzechInvest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체코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체코 전체 산업생산량의 52%, 총 수출의 60%를 생산하고 있고 산업 인력의 37%를 고용하고 있다.

2. 연도별 투자현황

1995년 이후 체코의 산업이 점차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낙후된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신규기술 도입 부문 등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이 산업 전반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체코 기업들은 취약한 국내자본의 투자여건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과중한 채무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경영·관리능력 부재 등의 문제까지 떠안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체코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FDI를 유치하는 대신 체코 국민 및 기업들이 국영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쿠폰 방식(voucher privatization)을 채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해당 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 약화 등으로 이어졌다.

〈그림 1〉 연도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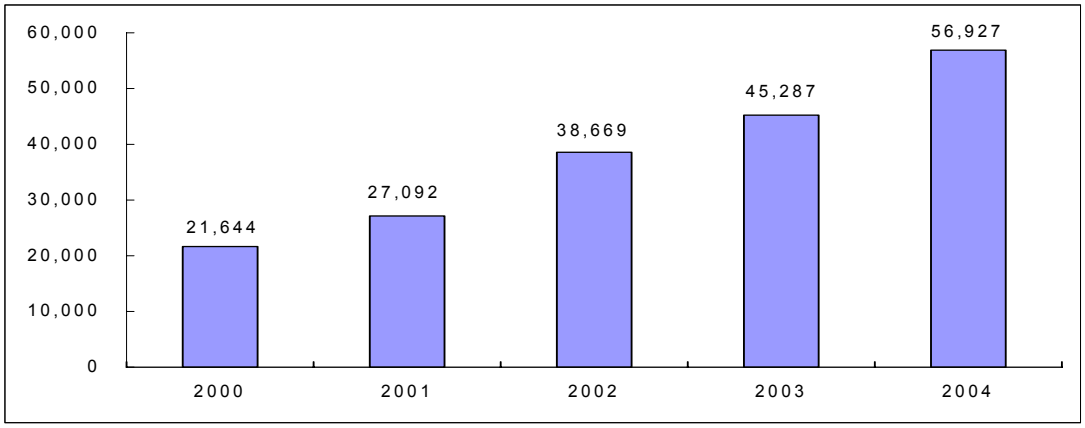


주: 순유입기준(UNCTAD Major FDI Indicators FDI Inflows Notes 참조)
자료: UNCTAD, Czech National Bank.

2)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를 포함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협정에 따라 0~15% 사이임.
3) OECD: 1등급, S&P: A-, Moody's: A1, Fitch: A.

〈그림 2〉 연도별 FDI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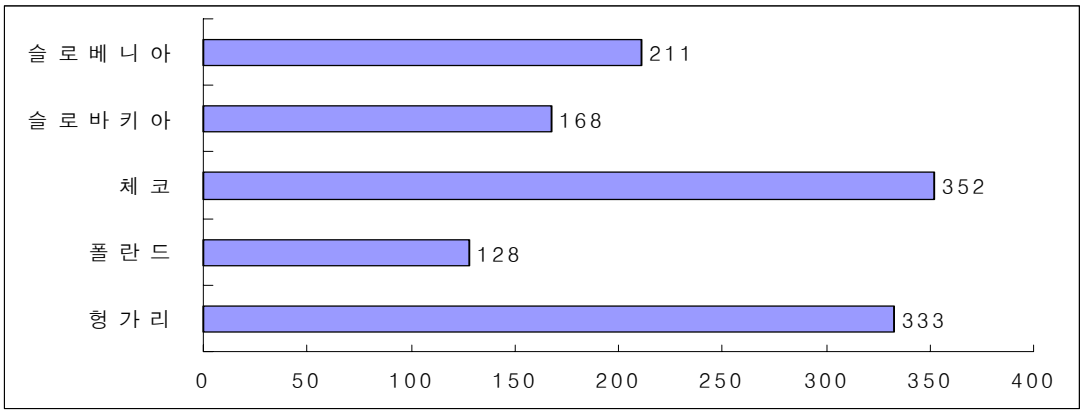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1997년 5월 통화위기로 인한 극심한 투자부진이 FDI 유치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1998년 4월 체코 정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정부의 FDI 유치노력에 힘입어 1998년에는 미국의 GE Capital이 체코 최대은행 중의 하나인 Agrobanka를 인수하였고, 일본의 Nomura International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도 Investicni a Postovni Banka와 Ceska Sporitelna를 각각 인수하였다. 체코는 이 같은 민영화 추진에 힘입어 마이너스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는 전년 대비 186%나 증가한 37억 달러 규모의 FDI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1999년에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63억 달러의 대규모 FDI가 유입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0~01년에는 민영화 둔화, 세계경기의 침체 등으로 1999년보다도 FDI 유입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독일 RWE Gas가 체코의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Transgas를 인수하고, 오스트리아 Erste Bank도 Ceska Sporitelna의 일부지분을 매입하는 등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85억 달러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2003년에는 21억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는데, 이 같은 투자유입액 감소는 이미 상당수의 대규모 민영화 대상기업들의 매각이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 EU 가입은 체코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10개국에 대한 FDI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성공적인 EU 가입에 따른 정치·경제의 안정,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 EU 회원국간의 무역장벽 제거 및 교역비용 절감 등은 체코 및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금속, 운송기기, 전기·광학기기, 화학제품, 고무제품의 생산 및 수출호조, 신규투자 및 재투자의 증가 등으로 2004년 중 FDI 유입액은 50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5년에는 스페인의 Telefonica가 체코 정부의 Cesky Telecom 지분(51%)을 매입하고, Toyota Peugeot Citroën 자동차공장의 본격적인

〈그림 3〉 중동부유럽 5개국의 2004년 중 1인당 FDI 비교

단위: 유로



주: 1유로=1.35달러(2004년 말 기준)
자료: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생산이 시작되면서 110억 달러[4]의 FDI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EU 구조조정자금을 이용한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와 자동차부문을 중심으로 한 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가별 투자현황

2004년 말 기준으로 체코의 FDI 누적규모는 569억 달러이고, 이중 90%는 유럽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2004년 중 EU 15개국으로부터 유입된 FDI는 전체의 74%(유럽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 EU 15개국의 대 체코 FDI가 전년 대비 300%가 증가한 점은 EU 가입 이후 체코가 서유럽 국가들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4년 중 체코의 1인당 FDI는 352유로이며, EU에 신규가입한 중동부유럽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3〉 참조).

반면, 중동부유럽 지역의 대 체코 FDI 누계는 2004년 말 현재 57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등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6.2%), 아시아(1.8%), 아프리카(0.2%) 등지의 대 체코 투자도 아직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이 최대투자국이며,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도 그 뒤를 잇는 주요 투자국들이다.

4. 업종별 투자현황

1993~2005년 중 업종별 FDI 누계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377억 달러(6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162억 달러(30.0%), 농림수산업 2억 달러(0.3%) 등으로 집계되고 있

4) Czech National Bank 추정치임.

〈표 1〉 국가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2003	2004	2005	1993-2005(비중)
독 일	163	758	1,115	13,288(24.6)
네 덜 란 드	-1,056	2,002	1,985	9,278(17.2)
스 페 인	57	68	4,912	5,279(9.8)
오 스 트 리 아	484	439	459	4,919(9.1)
프 랑 스	680	-176	220	3,412(6.3)
미 국	154	505	107	3,366(6.2)
스 위 스	136	184	258	2,552(4.7)
벨 기 에	-253	-52	185	2,159(4.0)
영 국	636	19	231	2,080(3.8)
일 본	328	39	138	779(1.4)
스 웨 덴	-49	-32	291	743(1.4)
이 탈 리 아	73	51	29	467(0.9)
덴 마 크	-13	-50	-13	379(0.7)
캐 나 다	131	-123	-1	149(0.3)
기 타	630	1,342	1,075	5,182(9.6)
합 계	2,101	4,975	10,991	54,032(100.0)

주: 순투자기준(2005년 금액은 추정치)임.
자료: Czech National Bank.

다. 세부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99억 달러(18.3%), 금융중개업 97억 달러(17.9%), 부동산업 64억 달러(11.9%), 무역 및 숙박·요식업 64억 달러(11.9%), 기계설비 58억 달러(10.7%) 등으로 주로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5년 중 비제조업에 대한 FDI는 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5.5%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 중 투자실적은 당해연도 총투자실적의 83.1%를 기록하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이 전체 비제조업 투자의 26.3%, 금융중개업 25.7%, 부동산업 17.0%, 무역 및 숙박·요식업 17.0%, 전력·가스·수자원 7.4%, 건설업 2.9%, 광업 1.8%, 의료·복지 0.2% 등의 실적을 보였다.

체코에서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은행 및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으로 금융중개업에 대한 FDI가 강세를 보여 왔으며, 수도 프라하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숙박·요식업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중개업, 부동산업 부문 등의 투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Cesky Telecom 민

〈표 2〉 업종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2003	2004	2005	1993-2005(비중)
비제조업	운수창고업·통신업	-2,911	270	4,962	9,892(18.3)
	금융중개업	891	764	1,302	9,698(17.9)
	부동산업	440	1,644	1,942	6,406(11.9)
	무역·요식업	654	739	574	6,404(11.9)
	전력·가스·수자원	249	290	147	2,802(5.2)
	건설업	153	12	93	1,084(2.0)
	광업	31	132	53	688(1.3)
	농림수산업	2	83	5	157(0.3)
	의료및복지	-3	0	1	77(0.1)
	교육	1	0	0	3(0.0)
	기타	-21	29	64	612(1.1)
	소계	-514	3,963	9,143	37,823(70.0)
제조업	기계설비	1,651	-39	300	5,795(10.7)
	금속제품	659	505	642	2,925(5.4)
	석유화학제품	88	266	496	2,503(4.6)
	식료품·담배	104	8	157	1,845(3.4)
	비금속제품	87	1	76	1,359(2.5)
	목재	38	277	119	1,181(2.2)
	기타	-12	-6	58	601(1.1)
	소계	2,615	1,012	1,848	16,209(30.0)
합계		2,101	4,975	10,991	54,032(100.0)

주: 1. 업종 분류는 Czech National Bank 분류 기준을 따름.
2. 순투자기준(2005년 금액은 추정치)임.
자료: 〈표 1〉과 같음.

영화의 영향으로 2005년 중 통신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반면, 무역 및 숙박·요식업, 전력·가스·수자원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중 제조업에 대한 FDI 실적은 1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의 26억 달러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18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년 대비 82.6% 증가하였다. 이 같은 2005년의 투자 급증은 Toyota Peugeot Citroën 자동차공장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계장비 및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1998년 이후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FDI가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설비 부문이 제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35.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속제품(18.0%), 석유화학제품(15.4%), 식료품 및 담배(11.4%), 비금속제품(8.4%), 목재(7.3%) 등이다.

Ⅲ.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와 장애요인

1998년 이전까지 체코는 FDI에 대해 자국의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별다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FDI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1998년 4월 FDI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으로 FDI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도입에 따른 효과는 FDI 유입규모의 증가로 나타났는데, 1997년 13억 달러에 머물렀던 FDI는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997년 대비 186%, 386%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1.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1998년 도입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제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산업지대 개발, 부품 공급업체 발굴 프로그램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특별 인센티브

뛰어난 기술력, 우수한 인적자원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체코는 이 부문의 FDI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공업을 중심으로 한 FDI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표 3〉 제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 요약

인센티브	내 용
조 세	· 신규기업에게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경감 · 기존기업의 확장 및 사업설비 현대화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부분경감(단, 법인세 경감 인센티브는 EU가 정한 국가지원 최대 기준에 달함과 동시에 종료)
고용창출	· 고용창출 기업에게 재정지원: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지역의 실업률이 국가 평균 실업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며, 5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신규노동자 1인당 최대 20만 CZK가 지원됨.
교 육	· 신규 노동자의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고용창출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투자지역의 실업률이 국가 평균실업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며, 5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지원됨.
부지임대	· 공유지의 저렴한 임대: 공유지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인센티브의 적용이 가능하며, 투자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전에 공유지가 선정되어야 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80개의 산업지대가 조성되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어 왔음.

주: 2006년 1월 말 기준.
자료: CzechInvest.

〈표 4〉 제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수혜 대상 기준

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며, 생산설비의 최소한 50% 이상이 정부가 인정한 고도기술 설비에 포함되어야 함.
② 투자는 신제품이나 기존제품의 확장이나 현대화에 이루어져야 함.
③ 투자자는 3년간 최소 20만 CZK(8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 기준은 투자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15만 CZK 또는 10만 CZK로 감소됨.
④ 최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은 투자자의 개인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함.
⑤ 전체 투자액의 최소 40% 이상은 기계류에 투자되어야 함.
⑥ 생산된 제품은 체코의 환경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주: 2006년 1월 말 기준.
자료: 〈표 3〉과 같음.

으며, 2005년 말 현재 총 239개의 기업들이 동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법인세 경감, 부지임차 비용 경감, 고용창출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 5월 1일에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EU의 기준에 맞게 개정한 투자 인센티브법이 발효된 데 이어, 2004년 5월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뒤따랐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1998년의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신규투자에 한해서만 최대 10년간 법인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2000년 법 개정으로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기존투자를 확장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부분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4년 EU 가입으로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법 중 국가보조금(state aids)에 대한 사항이 EU의 기준에 맞게 개정되면서, 체코는 기업들에게 EU의 기준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국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감독권한은 기존의 체코의 반독점 전담부처에서 EU 집행위원회로 이전되었다.

체코의 실업률은 2004년 말 현재 9.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 프라하[5]와 인근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대 2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광업 및 철강업 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아직도 회복 단계에 있는 북부 보헤미아 및 북부 모라비아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2004년 6월 2일에는 이처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특정 서비스업(소비자지원센터 등)에 투자를 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도입되었다.

동 인센티브의 수혜를 위해서는 평균 실업률이 14%를 넘는 지역에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업 및 특정 서비스업 부문에 신규투자 또는 기존투자의 확대 및 시설 현대화가

5) EIU에 따르면, 2005년 11월 말 현재 프라하의 실업률은 3.3%임.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투자자본은 1,000만 CZK로 최소투자자본의 절반은 투자자 개인의 자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최소 10건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조건들은 인센티브 협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충족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용창출의 경우 1인당 최대 20만 CZK[6], 신규 노동자의 교육 및 재교육의 경우 최대 총 교육비용의 35%까지[7]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24개의 기업들이 동 인센티브를 수혜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 투자자본 금액은 1998년 2,500만 달러, 2002년 300만 달러, 2006년 1월 3년간 800만 달러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산업지대 개발

체코 정부는 신규투자 기업들이 신속하게 생산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인프라 등이 잘 발달된 산업부지를 개발하는 등 산업지대 개발정책을 시행하였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지대를 개발·육성하여 활발한 신규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투자지역의 실업률 감소에도 일조를 하였다. 1998년에는 4개의 전략적 산업지대가 조성되었으며, 1999년에는 추가적인 산업지대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투자기업 및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체코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산업용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U 구조조정 기금을 이용한 기존 산업지대의 재개발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 부품 공급업체 발굴

1999년 체코는 외국기업과 국내 부품 공급업체간의 효율적인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체코 내 제조업 부품 공급업체의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출범하게 된 배경으로는 체코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국기업과 양질의 부품 공급업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투자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나타난 데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이 투자국 내에서 부품 조달을 해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절감, 품질 관리·감독,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 변경 등 유연성 제고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은 이에 앞서 양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를 확보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만해도 체코 내의 부품 공급업체의 기술수준은 외국기업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여 체코 내의 많은 외국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의 90~95%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체코 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자국의 제조업 부품 공급업체의 기술수준을 끌어 올림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체코 내의 부품 공

6) 신규 노동자의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7) 정부는 1인당 최대 3만 CZK까지 지원하고 있음.

〈표 5〉 서비스 및 기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 기준

투자종류	·기술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솔루션센터 ·헤드쿼터	·콜센터 ·첨단기술 지원센터 ·공용서비스센터 (헤드쿼터 제외)
최소 투자금액	1.5억 CZK	3억 CZK
최소 신규 고용창출 건수	15건	50건
투자자의 자기자금 부담액	750만 CZK	1.5억 CZK
생산과의 연관성(기술부문만 해당)	기술센터의 결과물은 생산에 기여를 해야 함.	-

자료: 〈표 3〉과 같음.

급업체로 부품을 조달해 가는 비중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체코 현지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체코는 특히 자동차, 의료·제약, 항공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 부품 공급업체들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부품 공급업체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외국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국의 부품 공급업체들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힘쓰고 있다.

2. 서비스 ·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98년 이래 체코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고용창출 효과가 비교적 큰 제조업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첨단기술, R&D, 전략적 서비스(물류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FDI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투자의 흐름으로 부각되면서 중동부유럽의 IT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3년 12월 체코 정부는 서비스 및 기술 개발·혁신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영업지원서비스 및 기술 부문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Framework Programme for Support of Technology Centres and Cenres of Business Support Services)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2002년에 도입되었던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의 뒤를 이은 것이다. 여기에서 영업지원서비스란 소비자연락센터, 다국적기업의 지역별 헤드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통신기술 및 첨단기술 지원센터 등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정보기술 부문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동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활동의 결과물이 인센티브 수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정규 생산과정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무형고정자산(최초 5년간) 또는 노동자의 2년치 평균임금(최초 3년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대 50%가 매년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으로 EU가 제시하는 최대 국가 지원 기준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둘째, 특별교육[8] 비용의 최대 35%[9], 일반교육 비용의 최대 60%[10]까지가 매년 지원된다. 또한, 최대 지원기간은 3년[11]이고 1인당 최대 10만 CZK[12]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05년 말 현재 동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은 64개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004년 1월 CzechInvest는 중소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통상산업부 산하의 Agency for Business Development(APR)와 CzechIndustry 등 2개 기관과의 합병을 통해 단일 투자·개발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로써 CzechInvest는 FDI 유치뿐만 아니라 APR이 기존에 담당하였던 중소기업의 개발·지원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투자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은 Czech-Moravian Guarantee and Development Bank와의 협력 하에 통상산업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EU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13]에 대한 지원 규모는 프라하의 경우 투자규모의 최대 30%, 나머지 지역에서는 61~65%로 제한되어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보증과 고정금리 대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체코는 신규 사업자, EU 환경기준 인가, 장애인 고용, 수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등의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신용등기소가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중앙신용등기소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채무부담 및 채무구조의 건정성 등에 관련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정보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체코는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GDP의 0.58%를 중소기업의 R&D 활동에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0.6%로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2005년 1월에는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비율이 최대 10%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통상산업부는 신제품·원료, 생산기술, 정보기술 부문 등의 R&D를 활발히 진행하거나, 과학·기술계와 기업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에너지, 원료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

8) 법령에 따르면, 특별교육은 투자자의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회사로 쉽게 전이할 수 없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함. 반면, 일반교육은 투자자의 프로젝트 범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도 쉽게 전이가 가능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뜻함.
9) 프라하의 경우는 30%임.
10) 프라하의 경우는 55%임.
11) 100건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한 경우는 5년임.
12) 100건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한 경우는 15만 CZK임.
13) 체코 법률은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노동자가 250명 미만인 기업으로, 이중 소기업은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R&D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체코 정부는 혁신전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부부처 간의 협력 강화, 추가적인 재정·행정 지원,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증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또한 현재 법적인 장벽 등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는 대학 연구의 상업화 추진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과학·기술의 상업적 응용 확대를 통해 정부의 R&D 투자 육성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투자 장애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체코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및 투자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FDI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법률체계, 복잡한 행정절차 및 관료주의 관행 등은 현재 체코가 안고 있는 주요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 법률체계

최근 재판관들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기소가 빈발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기관 내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과중한 소송건수,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위신 등으로 재판관의 수요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점과 특히 지방법원들의 행정 및 기술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은 민사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한편, 사법집행자회의소가 2001년부터 운영되면서 사법재판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되었지만, 많은 외국기업들은 아직도 사업등록 등과 관련된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업등기부의 잔무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업등기부는 회사등록 처리 소요기간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15일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 판결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법정 절차, 담보권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집행의 어려움 등도 외국인투자자들이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는 점이다.

체코의 파산법은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투자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현행법에서는 법정 절차를 시작하는 시간을 연기하는데 따르는 사법적 처벌이 경미하여 일부 채무자들이 이 시간을 기업 자산의 박탈에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규의 미비로 채무 불능을 선언한 기업은 구조조정의 기회 없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법무부는 파산법의 개선을 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파산법의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도입될 신규 파산법은 OECD의 권고사항에 따라 파산선언에 관련된 추가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15일 내로 결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파산법은 파산 수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파산에 앞서 채무자에게 구조조정 방식을 장려하여 채무자의 기업 자산 박탈에 대한

〈표 6〉 중동부유럽 국가의 사업환경 순위 비교

국 가	종합	회사설립	조세	고용·해고	투자자보호	계약상의 권리집행	폐업
체 코	41	77	70	60	68	21	101
슬로바키아	47	48	69	74	118	81	44
폴 란 드	54	92	106	64	22	104	23
헝 가 리	52	72	98	85	84	31	50

주: 사업환경 순위는 155개국을 대상으로 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6*.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의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나. 행정절차

법률체계에 이어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은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회사설립 절차를 투자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체코의 회사설립 관련절차는 10단계, 회사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일인 반면,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는 설립절차 기준으로 각각 9단계, 10단계, 6단계, 설립에 걸리는 시간 기준으로는 각각 25일, 31일, 38일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체코는 회사설립에 있어서 중동부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편으로 나타났다. 회사설립 절차 중에서는 특히 사업등록 부문의 까다로운 절차 및 느린 진행 속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현재 이 부문에 관한 개혁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추진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상업등기와는 별도로 무역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두 절차를 하나로 통일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 중에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복잡한 행정절차, 관료주의 등은 자칫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FDI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행정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Ⅳ. 우리나라의 진출 현황 및 확대방안

1. 양국간 교역현황

가. 교역현황

우리나라와 체코의 교역규모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4.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0년 이후 대 체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체코와의 교

〈표 7〉 연도별 한-체코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상 품 수 출		상 품 수 입		상 품 수 지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금 액
1995	132	46.7	49	-1.9	83
1996	188	42.5	59	21.5	129
1997	175	-6.6	56	-6.1	119
1998	106	-39.6	29	-47.0	77
1999	92	-13.3	62	108.9	30
2000	66	-28.4	127	106.0	-61
2001	73	11.0	99	-22.2	-26
2002	109	49.4	100	1.5	9
2003	158	44.8	105	4.4	53
2004	313	98.5	108	3.5	205
2005	339	8.3	150	38.4	189

자료: KOTIS.

역에서 특징적인 점은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미약하여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독일, 네덜란드 같은 주변 선진국으로부터 우회수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 대 체코 수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은 전년 대비 98.5%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수출 급증의 배경으로는 EU 가입 이후 체코의 경제호전에 따른 수입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체코로부터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이후 대 체코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2년 이후에는 수입 규모가 매년 1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체코 상품수지 상황을 보면, 2000년 들어 적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2002년에 다시 흑자로 반전된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2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나. 품목별 수출입현황

2005년 중 대 체코 수출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전자 제품 및 부품으로 전년에 비해 3.4% 증가한 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송기계 1.2억 달러, 산업기계 861만 달러, 석유화학제품 743만 달러, 직물 및 섬유제품 480만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은 전자 제품 및 부품, 수송기계 및 산업기계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 상위 10개 품목(〈표 8〉 참조)이 총수출의 96.4%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승용차,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등이 수출 호조를

〈표 8〉 우리나라의 대 체코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자 제품 및 부품	167,839	237.1	173,583	3.4
2	수송기계	104,684	39.0	119,352	14.0
3	산업기계	8,011	199.8	8,607	7.4
4	석유화학제품	6,535	-30.6	7,430	13.7
5	직물 및 섬유제품	7,326	73.2	4,799	-34.5
6	기초산업기계 및 기타기계류	1,393	10.9	4,431	218.1
7	고무제품	1,555	43.3	2,573	65.5
8	정밀화학제품	2,376	58.6	2,554	7.5
9	플라스틱제품	2,318	33.8	1,999	-13.7
10	철강제품	141	-22.0	1,599	1,034.0

자료: 〈표 7〉과 같음.

보이고 있는 한편, 2005년에는 고무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65.5%와 1,034.0%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2005년 중 체코로부터 수입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체코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공업기계 분야의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으로 전년 대비 156.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3,40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예품 3,335만 달러, 수송기계 2,346만 달러, 전자 제품 및 부품 2,283만

〈표 9〉 우리나라의 대 체코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13,299	271.2	34,051	156.1
2	공예품	28,225	7.2	33,347	18.2
3	수송기계	10,139	-62.2	23,461	131.4
4	전자 제품 및 부품	23,988	-10.7	22,832	-4.8
5	철강제품	4,961	175.3	7,810	57.4
6	중전기기	2,803	6.0	5,688	102.9
7	정밀화학제품	4,083	21.5	3,581	-12.3
8	산업기계	6,310	343.8	3,473	-45.0
9	요업제품	3,214	24.4	3,062	-4.7
10	기초산업기계 및 기타기계류	2,998	34.4	2,639	12.0

자료: 〈표 7〉과 같음.

달러, 철강제품 781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기계 및 기계요소, 공예품, 전자 제품 및 부품, 철강제품 등이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기계 및 운송기계 제품은 2004년 체코 총수출의 50.5%를 차지할 정도로 체코의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이다. 세부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유리공예품, 기계부품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요업제품 등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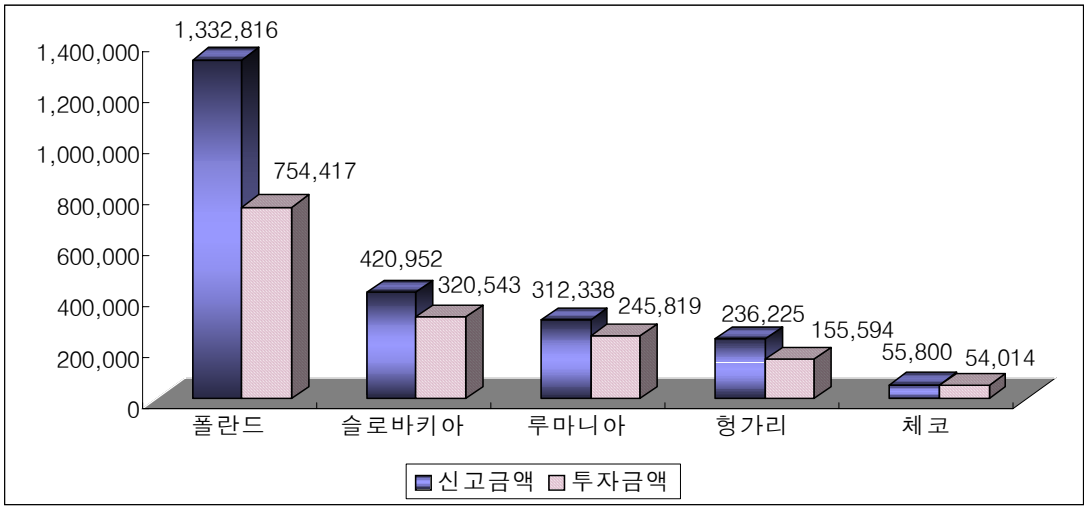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투자 · 진출 현황

가.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는 2005년 말 현재 투자기준으로 8건에 5,40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신고금액의 96.8%에 해당하는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에 투자한 실적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5년 말 현재 주요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대 폴란드 투자가 7.5억 달러(74건)로 최대실적을 기록하였고, 슬로바키아 3.2억 달러(26건), 루마니아 2.5억 달러(9건), 헝가리 1.6억 달러(30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는 여타 유럽국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및 북미 투자에 비해 건당 투자규모가 크고 연도별 투자실적의 기복이 있는 편이다.[14] 1993~98년에는 3,844만 달러가 체코로 유입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체코를 포함한 중동부유럽에서 활발한 투자

〈그림 4〉 대 주요 중동부유럽 국가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주: 2005년 12월 말 기준.
자료: 〈표 5〉와 같음.

14) 서희정, 2005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수은해외경제, 2006. 3.

활동을 하였던 대우계열사들이 국내 모기업의 부도사태로 1999년 체코에서 철수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는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건의 투자로 3,527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중소기업 또한 4건의 투자를 통해 1,874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업종별 대 체코 투자를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4,414만 달러, 도소매업은 987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종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수송기계 부문에 대한 투자는 2건에 3,550만 달러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비금속광물에 대한 투자가 1건에 860만 달러, 기타 부문의 투자가 4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소매업 투자는 전자통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우전자 및 LG전자가 각각 400만 달러, 547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나. 투자기업 진출현황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가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제조업 부문 외에도 물류업, IT, 첨단공학, 생명과학 및 의료 등 투자 업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체코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의 Skoda (Volkswagen의 자회사), Toyota Peugeot Citroën, 물류업 부문의 DHL,

〈표 10〉 **연도별 대 체코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1992	0	0	0	0
1993	1	1,000	1	1,000
1994	3	10,230	2	3,040
1995	0	0	1	304
1996	0	0	0	5,600
1997	0	0	0	0
1998	1	28,500	1	28,50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1	5,470	1	5,470
2004	0	0	0	0
2005	2	10,600	2	10,100
합계	8	55,800	8	54,014

주: 2005년 12월 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전자제품 부문의 Panasonic, Siemens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대만 업체들의 TV 및 PC 생산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2005년 12월에는 Changhong이 중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소비자 가전제품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Microsoft와 Sun Microsystems와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체코의 IT 및 R&D 분야 투자에 대한 외국인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형 상용차 생산법인인 대우아비아가 미국계 회사에 매각된 이후 체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TV 및 컴퓨터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LG Philips Displays와 자동차부품 업체인 성우하이텍 등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현대자동차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는 총 10억 유로(약 1조 2,000억 원)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오스트라바(Ostrava)[15]에 설립할 예정이다.

3. 진출 확대방안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진출 현황, IT 산업 경쟁력, 체코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IT 관련 부문 진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월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Cesky Telecom의 민영화 이후 2005년 5월 신규 전자통신법이 발효되면서 전자통신 부문은 완전한 자유시장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체코의 전자통신 인프라 및 기술은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으나, 유·무선통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서유럽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신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현대화 부문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 몇 년간 전자통신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이 분야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체코의 전자통신 시장 규모는 GDP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인터넷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먼저 휴대폰의 경우 1995년 4만 9,000명에 그쳤던 가입자 수가 2005년 말 현재 1,145만 명으로 보급률이 112%[16]를 기록하였는데,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휴대폰 보급률은 EU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150%), 리투아니아(11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가입 이후 체코인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구매력도 향상되면서 신형 휴대폰 및 휴대폰 기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 휴대폰 현지 생산이나 다양한 휴대폰 기능·컨텐츠 서비스 개발 등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부문도 휴대폰 시장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접속

15) 오스트라바(Ostrava)는 프라하, 브르노(Brno)와 함께 체코의 3대 도시로 꼽히고 있음.
16) 1인이 2개 이상 가입한 현황도 포함함.

비용 인하추세와 함께 고속인터넷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속인터넷의 보급률은 2005년 10월 1일 현재 5.6%로 중부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가운데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였다. 체코의 급속한 인터넷 환경 개선 및 사용자 급증추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e-Government), 무선인터넷, 인터넷 장비 및 솔루션 프로그램의 개발 부문 등도 진출이 유망하다. 또한,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럽 전체에 대한 IT 관련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센터가 체코 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체코는 주변국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과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저렴한 인건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인력, 지리적 이점, 물류환경 및 비용경쟁력 등이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현대자동차는 현재 체코 내 승용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판매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생산(연산 30만대)을 시작하게 되면 Skoda, Toyota Peugeot Citroën의 생산규모와 함께 체코는 유럽 내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투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체코 내의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은 내수시장 및 서유럽을 위한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동유럽에 대한 진출거점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부품 및 노동력의 조달이 용이하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물류비용 감소의 효과도 얻고, 고용창출과 관련된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진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및 체코의 잘 발달된 도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물류부문으로의 진출과 체코의 주요 산업중의 하나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로의 진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초로 체코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현지 업체나 체코와 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한 독일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체코에 대한 우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진출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부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상철, 비즈니스 現場에서 본 東유럽 25時, 2005. 12.
2. 서희정, 2005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수은해외경제, 2006. 3.
3. 이철원, 한국 기업의 중·동구 진출전략, 수은해외경제, 2006. 2.
4. 한홍렬, EU 확대와 제3국 보상문제, 국제지역학회 2005 춘계학술대회, 2005. 5.
5. 한국타이어 사업기획팀, Investment in Central Europe, 2006. 3.
6. EIU, *Country Profile: Czech Republic*, 2006.
7. ___, *Country Report: Czech Republic*, 2006. 1.
8. OECD, *OECD Economic Surveys 2004: Czech Republic*, Vol. 2004/17, 2005. 1.
9.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Transitional Corporations and the Internalization of R&D*, 2005.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11. 외국학종합연구센터(http://segero.hufs.ac.kr).
12.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13.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14.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www.ica.or.kr)
15. CzechInvest(www.czechinvest.org)
16. Czech National Bank(www.cnb.cz).
17.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www.wiiw.ac.at).
18. UNCTAD FDI Statistics(http://stats.unctad.org/fdi).
19. U.S. Department of State, 2005 Czech Republic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www.state.gov).
20. World Bank Doing Business(www.doingbusiness.org).